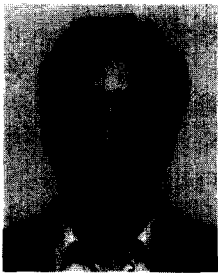


## □ 컴퓨터 단상 □

## 컴퓨터의 진보와 삶의 질

스토리넷 김학진\*



필자가 10년전 PC를 처음 장만했을 때 생각이 난다. 100만원이란 거금을 주고(한뭇에 낼 수가 없어 10개월 할부로 구입했지만) 서재에 딱하니 컴퓨터를 설치했을 때의 뿌듯함이란.. 그런데 이 컴퓨터

는 지금은 단종된 XT기종으로 하드디스크 용량이 10메가바이트(MB)였다. 그것도 다른 사람은 하드디스크 없이 FDD만 2개 있는 것을 구입했는데 나는 나중에 원고 보관할 것도 감안해 하드디스크가 있는 모델을 선택한 것이다.

그후 우리집 컴퓨터는 386으로, 펜티엄으로 두차례 업그레이드했고 드디어 작년에 그동안 조금씩 부품을 교체해 사용하던 컴퓨터를 버리고 최신기종인 펜티엄Ⅲ로 완전히 바꾸었다. 현재 우리집 PC의 하드디스크 용량은 10기가바이트(GB)가 넘는다. 10년만에 컴퓨터 저장장치가 10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제는 몇백MB짜리 게임도 하드디스크에 그냥 담아서 사용하고 나도 우리집 꼬마도 하드디스크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온갖 잡동사니가 PC에 담겨 있다. 그런데도 작년에 구입한 10기가짜리 하드디스크의 가격은 10년전에 산 10메가짜리 하드디스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최근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20기가짜리 PC용 하드디스크도 곧 등장할 전망이다라고 한다. 더구나 필자가 소속된 회사에서는 수십-수백개

의 하드디스크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테라바이트 단위까지 공급하고 있으니 컴퓨터 기억장치의 발전은 하루가 다를 지경이다.

10년전 처음 PC통신을 사용할 때 1200bps 모뎀으로 흑백 화면에 글자들이 뜨는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하나로통신의 ADSL에 가입,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고속인터넷에 연결할 수가 있다. 하나로측에서는 최대 8Mbps까지 속도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 대략 1.5-3Mbps는 나온다. 지난주 술약속 때문에 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인터넷으로 본다. 통신속도도 10년전에 비해 1000배 이상 빨라졌다.

인텔 창업자 중 한사람인 고든 무어는 "하나의 칩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의 밀도는 18개월마다 2배로 높아지는 반면 칩 하나의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다. 반도체나 컴퓨터 통신 등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이런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작년에서 올해에 이르는 벤처열풍도 무어의 법칙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500원짜리 주식이 몇 달만에 10만원을 넘어서고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마련하지 못해 쪼쪼매던 벤처기업 사장들이 갑자기 100억대 부자가 되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을 받게 됐다. 잘 나가던 대기업 직원들이 너도나도 기회와 황금의 땅인 테헤란밸리로 모여들었다. 15년간 신문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벤처기업에 뛰어든 필자도 그 중 한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충분한 준비와 물적 토대없이 '묻지마 투자'에 편승해 성

\* E-mail: jeankim@dreamwiz.com

급하게 불어닥친 벤처바람은 닷컴기업들의 풍선이 꺼지면서 한숨으로 바뀌고 있다. 어느덧 축제는 끝나고 투자자들의 냉담한 반응속에 M&A를 기다리는 벤처기업들로 요즘 테헤란밸리는 우울한 분위기다. 과학기술이란 그렇게 간단하게 성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진리를 요즘 벤처기업 경영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런 면도 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이나 데이터 전송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지만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조직사회는 생각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간사회가 어디 첨단 정보통신처럼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가. 인간은 여전히 하루 세끼 밥먹고 8시간 잠을 자야 하고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진급이나 월급인상에 연연하며 거미줄 같은 조직에 얽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던가. 그래서 100여년전 칼 마르크스는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관계(사회조직)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낡은 생산관계가 발전된 생산력을 감당하지 못해 모순으로 작용하

다가 마침내 혁명을 통해 새로운 생산관계로 전환한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어릴 적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한다고 무턱대고 믿었다.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하루에 3.4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거나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을 지망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삶은 고단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노동의 강도가 커지는 것은 왜일까. 10년전과 비교해 희망과 자신감이 줄어들고 일하는 재미도 덜해진 반면 더 피곤해지고 앞날이 불안하다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 단순히 우리 사회의 부를 축적하기만 하면 좀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파괴된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은 이같은 물음에 진지하게 답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 제27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

- 일 자 : 2000년 10월 27 ~ 28일
-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 문 의 처 : 한국정보과학회 사무국  
Tel. 02-588-9246/7, 4001/2  
<http://www.kiss.or.kr>